

[환경]

黃砂

기간

천식·뇌졸중 입원환자 는다

봄철 황사가 발생하면 천식이나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인천이나 대전 등 비교적 큰 광역시보다 천식이나 뇌졸중 입원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황사를 환경호르몬보다 더 해롭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환경연구원이 지난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과 광주 등 7대 도시의 병원 입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황사 발생일로부터 이를 후까지 천식 입원건수가 황사가 없는 날(비황사일)에 비해 4.6~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과 서울, 부산의 경우 황사발생 당시의 천식 입원건수는 비황사일보다 각각 17.1%, 8.4%, 7.6% 증가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황사로 인한 뇌졸중 환자 증가추세도 뚜렷하게 나

황사 발생 1주일 후 광주 뇌졸중 환자 17%↑

“폐에 흡수된 미세입자 심혈관계 질환 유발”

터났다.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건수는 전국적으로 황사발생 이후에는 평소보다 1.7%, 3일 후에는 3.7%가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황사가 발생한 일수는 인천이 가장 많은 59일을 기록했으며, 서울 56일, 대전 49일, 광주 47일, 대구 45일, 부산 42일, 울산 40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는 이 기간 황사가 가장 자주 발생한 인천(천식입원 13.57, 뇌졸중 입원 14.84)과 비교했을 때 각각 13.55·13.29건으로 비슷하게 나타나 뒤에 후회화대응에 대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의 경우 뇌졸중으로 인한

입원건수가 황사발생일에는 상대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았으나 6, 7일이 지난 후에 각각 13.6%·16.9%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폐에

서 흡수된 미세입자가 혈액 안에서 혈전을 형성해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결과는 소아나 노인, 천식 환자들이나 뇌심혈관계 질환 고위험군과 같은 민감군에 대한 보호방안 및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은 시민들의 의식에도 그대로 반영돼 연구원이 7대 도시의 20세 이상 남녀 5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시민들은

황사가 환경호르몬이나 산성비보

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안한 음악감상을 0, 출렁대 흡연을 10으로 놓을 때 황사의 건강 위험도는 7.67로 환경호르몬(7.26)이나 산성비(6.54), 여름철 오존주의(6.23), 다이옥신(6.21), 원자력발전소(5.79), 전자파(5.77)보다 높았다.

황사기간에 기침이나 가래 등 신체적 불편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48.5%에 달했고 의료기관 방문 경험이 있는 사람도 40.4%나 됐다. 또 가족 중 불편 증상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27.3%였고, 이 중 59.3%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황사기간에 천식이나 뇌졸중 입원율이 높아지는 것은 확인됐지만 직접적인 원인이 황사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새들이 사라지고 있다

환경 파괴로 서식지 감소 … 유럽 124종 중 56종 개체수 ↓

조류보호단체 보고서

일상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조류의 개체수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영국 BBC 뉴스 인터넷판이 22일 한 보호단체의 연구결과를 인용해 보도했다.

국제조류보호단체인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Birdlife International)은 2008년 ‘세계 조류의 현황’ 보고서를 통해 서식지 파괴로 인해 조류들이 전 세계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밝혔다.

버드라이프는 유럽 멧비둘기의 개체수가 지난 2004년 대비 79% 감소하는 등 유럽의 일상적인 조류 가운데 45%, 호주 섭금류(황새목·두루미목·도요목) 중 80% 이상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26년에 걸쳐 유럽 지역의 조류 124종을 조사한 결과 20개국에

서 56종의 개체수가 감소했으며 아프리카에서도 보호 구역 외의 지역에서 맹금류가 대폭 줄어든 현상을 관찰했

다고 전했다.

또 철따라 이동하는 아시아 대륙의 물새들은 “감소하고 있거나 이미 멸종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버드라이프의 과학 분야를 담당하는 앤리 스타터스필드 수석애디터는 “수십년간 사람들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새들을 보호하는 데 노력을 쏟았지만 환경 파괴 때문에 생물다양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터스필드 애디터는 토지의 사용용도가 거기와 달리지고 집약적인 농업이 시행되면서 새들의 서식지가 파괴된 것이 개체수 감소의 대표적인 원인이지만 “실상은 좀 더 복잡하다”고 덧붙였다.

특정 조류 내지 서식지를 개별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충분치 않으므로 영향력의 범위가 더 넓은 정책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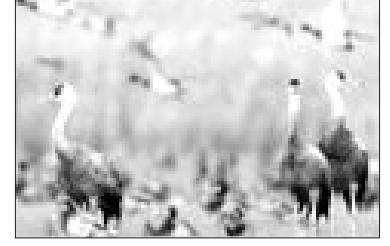
보고서는 각국 정부가 말로만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중단 시킬 것을 약속하고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요새〉



〈황새〉



〈흑두루미〉

람사르총회 개막 한달 앞으로

160개국 2,000명 참석 ‘환경축제’

창녕 우포늪 등서



오는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환경올림픽’ 람사르총회가 열리게 될 창원컨벤션센터(세코) 전경 모습.

경우 11월 2일 내륙·연안·산지 습지와 전통문화, 전통사찰, 환경체험 일정 등 8개 코스로 진행된다.

장소는 람사르 등록습지인 창녕 우포늪을 비롯해 창원 주남저수지, 순천만, 김해 수로왕릉과 한옥체험관, 마산 돌섬유원지와 봉암갯벌, 학천 해인사, 고성 당항포관광지 등으로 예정돼 있다.

생태관광은 공식 생태탐방과 관광프로그램으로 나눠 공식 생태탐방의 이번

행사와 관련한 다양한 전시·홍보관도 운영된다.

부대행사로는 세코에서 열리는 한국전통문화마당과 전통대장간 재현, 야생화 전시회, 한국전통음식관, 기념품 전시·판매 등이 준비되며 도립미술관의 람사르특별전, 도청광장의 신재생에너지 체험마당, 주남저수지의 일요화가스케치 등도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광주에서도 ‘車 없는 날’ 행사

25일 ‘광주시 기후변화대응 전략’ 포럼

27일 소태~상무역 자전거대행진

2008 세계 차 없는 날(9월22일)을 맞아 광주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자전거사랑 전국연합회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후 4시부터 광주시 동구 소태역과 서구 상무역 등지에서 2008 세계 차 없는 날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광주시민 자전거 한마당’이 열린다.

이날 행사에서는 소태역에서 상무

역까지 10km가량의 길이를 자전거로 이동하는 ‘광주시민 자전거대행진’이 진행되며, 어린이 세발자전거 대회, 장애물 건너기 대회, 어머니 세발자전거 대회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오는 25일 오후 4시부터 CMB 광주방송 공개홀에서는 ‘신(新) 고유 가치대!!!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주제로 광주시의 기후변화대응과 전략마련을 위한 포럼이 열린다. 이날 포럼에

는 인하대 경제학부 박희천 교사가 ‘가정부문의 에너지수요관리 및 절약정책’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김경철 선임연구위원이 ‘신 고유가시대 저에너지소비형 교통정책’을 주제로 발표를 갖는다. 또 에너지공단 박근호 광주전남지사장, 조선대 환경공학과 이인화 교수, 광주환경운동연합 임낙평 공동의장 등이 토론을 벌이게 된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지구 혹사 경고 22일 ‘지구 과잉 이용의 날’ 행사

국제환경단체들은 22일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40%나 많은 자원을 인간이 탐욕스럽게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 ‘지구 과잉 이용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과잉 인구와 탐욕스런 생활양식이 삶, 어업, 생물다양성, 토지의 질을 파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는 물공급과

농업 악화를 가하는 기름과 홍수를 일으키고 있다고 이 캠페인을 주도하는 ‘글로벌 풋프린트 네트워크’(GPN)(www.footprintnetwork.org)가 밝혔다.

지구 과잉 이용의 날은 지구 상 67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의 생물학적 능력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적정 이용

시한이 그 해의 어느 날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2008년의 경우 9월24일 이후부터 연말까지는 지구가 자원을 재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는 시기이다. 지구 과잉 이용은 지구 생태계에 부채를 더해 결국 인간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고 GPN은 밝혔다. ‘생태계 부채의 날’로 불리는 지구 과잉 이용의 날은 지난해는 10월 6일로 정해졌다.

/연합뉴스

| movies <small>여기 영화 즐기는 시간 보내세요</small> | | Happy Time | | 영화안내 | | PROG. NO. | | PROG. NO. | | PROG. NO. | | PROG. NO. | | PROG. NO. | | | | | | | | | | | | | | | | | | | |
|--|--------------------|---|-------------------------|---|----------------------------------|---------------------------------------|--------------------|---------------------------------|----------------------|---------------------------------------|----------------------------------|---|---------------------|--|----------------------|----------------------------|---------------------|----------------------------|----------------------|----------------------------|------------------------|----------------------------|----------------------|----------------------------|----------------------|----------------------------|--|--|--|--|--|--|--|
| <small>movies 더 재밌는 영화관 www.megabox.co.kr</small> | | <small>Happy Time</small> | | <small>영화안내</small> | | <small>PROG. NO.</small> | | <small>PROG. NO.</small> | | <small>PROG. NO.</small> | | <small>PROG. NO.</small> | | <small>PROG. NO.</small> | | | | | | | | | | | | | | | | | | | |
| 더기박스 | | 엔터 시네마 | | 콜롬버스 시네마 | | 씨너스 전대 | | 하미 시네마 | | 제일 시네마 | | 제일 시네마 | | 제일 시네마 | | | | | | | | | | | | | | | | | | | |
| <small>구. 텐션 액국사거리 ☎ 1544-0600</small> | | <small>총장로 5가 (전화번호) 228-2700</small> | | <small>상무동 해남동</small> | | <small>복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small> | | <small>고객센터 ☎ 1588-0120</small> | | <small>전화번호 허미스포트스 ☎ 267-7777</small> | | <small>총장로 3가 ☎ ARS 전화에미 227-1960</small> | | <small>전화번호 7기 ☎ www.jallicinema.co.kr</small> | | | | | | | | | | | | | | | | | | | |
| 1관 신기전 (15세) | 2관 미러 (18세) | 3관 방콕 더인저스터스 (15세)/ 활시 (12세) | 4관 20세기 소년 (12세) | 5관 영화는 영화다 (18세) | 6관 올학교 이티 (15세)/외풀이 (15세) | 7관 20세기 소년 (12세)/영화는 영화다 (18세) | 8관 미러 (18세) | 9관 신기전 (15세)/맘마미아 (12세) | 10관 신기전 (15세) | 1관 미러 (18세) | 2관 신기전 (15세)/올학교 이티 (15세) | 3관 활시 (12세) | 4관 외풀이 (15세) | 5관 영화는 영화다 (18세) | 6관 맘마미아 (12세) | 7관 신기전 (15세) | 1관 신기전 (15세) | 2관 미러 (18세) | 3관 맘마미아 (12세) | 4관 영화는 영화다 (18세) | 5관 올학교 이티 (15세) | 6관 신기전 (15세) | 7관 맘마미아 (12세) | 8관 신기전 (15세) | 9관 맘마미아 (12세) | 10관 신기전 (15세) | | | | | | | |
| <small>• 이프류 주차장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과 함께)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small> | | <small>• 고교생 및 취준생 주차장 300대 - 금토 실아상영</small> | | <small>• 호남 최대 주차장 ◆ 매일설아 상영합니다</small> | | <small>• 1588-7941</small> | | <small>• 1544-0070</small> | | <small>• 1544-0070</small> | | <small>• 1544-0070</small> | | <small>• 1544-0070</small> | | <small>• 1544-0070</small> | | <small>• 1544-0070</small> | | <small>• 1544-0070</small> | | <small>• 1544-0070</small> | | <small>• 1544-0070</small> | | <small>• 1544-0070</small>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